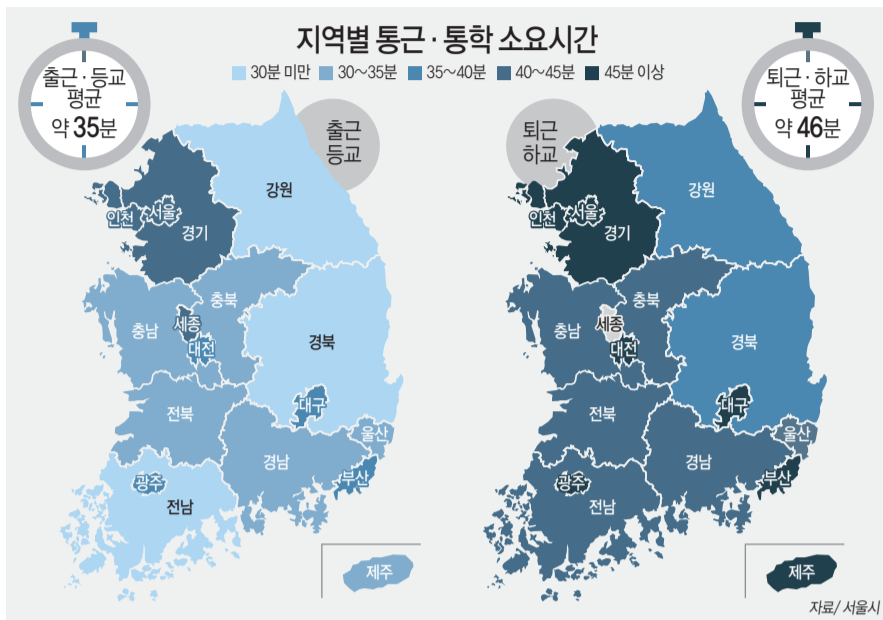


혼잡한 노선 증차... 대중교통 부족지역 노선 신설

서울시, 일·시간대별 '통근·통학 데이터' 정책에 반영

KT·교통연구원 등 빅데이터 활용 공간범위 1200곳으로 매일 갱신
삶 만족도 떨어트리는 요인 제거 청년주택 지역도 직주근접 실현



서울시가 출·퇴근과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지역, 일자, 연령, 성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통신 빅데이터를 이용해 '서울형 통근·통학인구 데이터'를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근·통학인구 데이터란 집 이외에 직장 또는 학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12세 이상 인구의 출발지와 도착지, 소요 시간 등을 기록한 데이터다. 출퇴근, 등하교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시는 이날 KT,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대중교통 이용률, 인구 정보 등을 융합·분석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와 KT의 통신 빅데이터, 한국교통연구원의 통행량데이터를 융합·분석할 계획이다. 연내 개발을 마치고 2020년 상용이 목표다.

시는 데이터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증차하거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한다. 또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을 때 20~30대 통근·통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그룹화하기 위해 시 전역을 행정동 단위보다 세밀한 1200개의 공간단위로 쪼개 데이터를 산출한다. 또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 나머지 지역은 시·도 단위로 묶는다.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으로 출퇴근하는 데이터까지 수집하는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는 20분 단위, 그밖에 시간대는 60분 단위로 정보를 작성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류해 외국인 출퇴근 유입·유출 인구를 파악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하는 통근·통학인구 정보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추출과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이용자 2% 표본조사가 있지만, 공간범위가 시·도·군·구 단위로 보다 넓고, 작성주기가 5년 또는 1년으로 길어 시의성이 떨어진다.

반면 이번 서울시의 통근·통학인구 정보는 공간범위가 1200곳으로 세밀하고, 매일 갱신되며, 인구특성을 연령·성별로 세분화하므로 정교하고 시의성

이 높다. 시는 추후 주택과 교통 정책을 세울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증차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할 수 있다. 청년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 20·30대 통근·통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정할 수 있다.

시는 개발된 데이터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제 누구나 일·시간대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통근·통학시간은 시민 개개인에게 중요한 문제로, 장거리 통근이나 극심한 혼잡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며 "서울시가 새롭게 개발할 통근·통학인구 데이터는 시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스마트도에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한화에스테이트

에너지빈곤층에 '3500만원' 기부

서울시는 한화에스테이트와 영등포본동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7일 오후 서울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부전달식을 개최한다.

한화에스테이트는 부동산종합자산관리 전문기업이다. 자산관리, 시설관리, 에너지 효율화 부문이 주요 사업 영역이다.

기부식에는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정연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화에스테이트는 영등포본동에 거주하는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3500만원 상당의 고효율기기를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한다. 본사업에 활용되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LED 조명기기 기부 및 설치 모습. /서울시

은 시민과 기업의 기부로 조성됐다. 전액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사용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지난 2년간의 지원으로 영등포본동은 생기로 가득 찬 마을이 되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뜻있는 시민, 기업과 손잡고 에너지빈곤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재배용 압축 배양토 '토비' 체험학습 인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식물재배용 압축 배양토 '토비'가 봄을 맞아 아이들의 체험학습용으로 활용되는 등 쓰임 폭이 넓어지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농기원이 지난해 개발한 식물재배용 압축 배양토를 활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추와 부추 재배 체험행사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18일까지 진행 중이다.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심고 가꾸면서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농기원이 개발한 압축 배양토 '토비'는 식물 재배를 위한 화분을 준비할 때 압축 배양토를 넣고 50~60초 동안 물만 부어주면 배양토가 팽창해 간편하게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이 완성된



경기도내 어린이들이 압축배양토 원예체험 학습 중. /경기도

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압축 배양토와 함께 수분 공급을 위한 심지 삽입장치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수분 공급 심지를 아주 쉽게 화분에 삽입할 수 있어 화분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SK(주) C&C

중소 2600곳에 클라우드 서비스 무료 제공

2024년까지 100억 상당 서비스
인력양성 등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SK(주) C&C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도내 중소기업 최대 2600개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정옥 SK(주) C&C 사업대표,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권락용·최만식·임채철 도의원, 도내 스타트업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클라우드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방대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분석·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반이다. 이번 협약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무상 제공



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안정옥 SK(주) C&C 사업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왼쪽부터)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SK(주) C&C

해 신성장산업 진입과 기업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SK(주) C&C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 상당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내 중소기업 최대 2600개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모를 통해 무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매년 최대 520개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SK(주) C&C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자원 등 연간 사용료가 약 20억원에 이르는 클라우드 IT 하드웨어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문 엔지니어링이나 모니터링 등 클라우드 위탁 운영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클라우드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교육 인원은 5년간 총 400명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문가(기초·심화) 과정은 물론, 청소년 및 경력단절여성, 기타 IT 기술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도민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활용교육이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은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맡고 교육에 필요한 클라우드 사용료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서울대공원 마지막 돌고래 '태지' 제주도에 남는다

서울시는 마지막 돌고래인 '태지'가 제주도에 남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태지 기증 및 관리에 관한 합동 서명식을 가졌다.

시는 2013년 아시아 최초 야생방류였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복순이, 2017년 금등·대포

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다. 종이 다른 큰돌고래 태지는 2017년 6월부터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관리해왔다.

서울대공원은 태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돌고래의 향후 거취문제를 두고 시민단체, 국내·외 전문가 등과 5차례 논의를 거쳐 태지를 제주에 두기로 결정했다.

태지의 나이(20세 추정)와 활동 상



태, 스트레스 최소화 등을 고려해 현 기관에 남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